21세기 우리 축산업의 대응전략

신승열, 허 덕 / 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칠레와의 FTA가체결되었고, 일본 · 중국과의FTA 체결이검토되고있으며
WTO의 UR협상결과이행과아울러 DDA협상이진행되는등
축산업을둘러싼국제적인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각종가축질병의발생과Wellbeing 바람등축산물수요를감소시키는
요인들이속속나오는가하면 rrnal등의환경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가축분뇨의환경친화적처리를하지않으면안되는등패러다임의변화를강요하고있다.
한국축산학회에서는이같은축산환경변화에따른
“ 21세기한국축산의대응전략 ”심포지움을개최하였다. 다음은이날발표된
“ 21세기축산물수급전망및대응전략 ”중대응전략부분을발췌한것이다. 〈편집자주〉.

1.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정책의 수정

축산물 수급의 균형은 일정 가격 수준을 전제로 한다. 일정 가격 수준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 수준 또는 생산비를 고려한 농가의 소득 확보 수준을 전제로 하기도 한다. 가격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는 규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개별 비목 절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가축비와 사료비이다. 한우의 경우, 그동안 가축비를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수단으로 제안되어 왔다. 즉, 농가의 소득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쇠고기 시장 개방 이전 또는 한육우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이전의 연구결과들에 기초한다. 즉, 큰수소 가격이 240 ~ 250만원 정도에서 형성되려면, 한육우 사육두수가 대략 200 ~ 220만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시의 적정 가격 및 사육두수 수준 산출시 가정 또는 주장하던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이를 1.6~1.8 정도로 보았으나, 이제는 그 수준을 훨씬 넘는 3~5배까지도 격차가 벌어졌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틀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요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수요의 확대가 정책의 주안점이었지만, 고품질의 의미로 위생이나 안전성 보다는 상품 자체의 품질을 차별화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0년 구제역 파동, 2002년 구제역 재발, 끊이지 않는 돼지콜레라, 2003년 후반기의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유럽과 미국에서의 광우병 파동 등을 거치면서, 작금에 와서는 상품 자체의 품질은 차치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상품 자체의 품질 제고, 위생적인 처리방법의 확보, 안전성 실현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바로 생산이력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 활성화 정책이며, 이제 수요확대의 패러다임은 바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있다. 앞으로 축산물 수요관련 모든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다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가. 생산 이력제의확대 시행 및 각종 정보의 연계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당 축산물이 누가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생산이력제(traceability)다. 농업을 비롯한 축산업에서의 traceability를 생산이력제라고 번역하여 그 범위를 생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축산의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도 유통부문이다. 일반적으로 traceability를 상품 추적성, 역추적 또는 기능 적합성으로 번역하여 상품이나 그 기능의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농업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이력제로 번역하여, 관련 업무도 생산에 관련된 부서가 담당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생산부문에서의 정보의 생산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생산이력체계 구축시 방역과 연계하여 정보의 역추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록 등이 불충분하여 해당 질병의 유입 및 전파를 막기 위한 조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어렵다. 축산물 생산이력제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브랜드 활성화사업이나 사료 및 종축, 질병방역 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모아진 각 가축 개체 또는 집단에 관한 정보가 모두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축산물 생산 이전부터 생산, 유통의 전과정에서 추적시스템 (Traceability)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축산물 중에서도 국내산 쇠고기에 국한하여 생산이력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수입쇠고기, 돼지, 양계산물 등 모든 축산물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유통의 투명화와 위생적 처리에 의한 소비자 신뢰 구축

국제적으로도 축산물 유통은 안전성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생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었지만, 소비자에게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을 믿게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적 개선 없이는 소비자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유통비용의 절감도 꾀하기 어렵다.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내 종사자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유통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수입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생산이력제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방역관리와 유통추적시스템을 확고히 한 후, 지속적인 광고를 통하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다. 친환경축산의 실현에 의한 소비자 인식 개선

그동안, 농림부와 환경부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축산업은 환경의 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축산업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좋은 인식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최근 친환경축산 나아가서 유기축산의 실현에 관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2004년부터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지만, 아직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오염발생자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가능한 한 보완하여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친환경축산은 유기축산의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축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전환기 유기축산 이후단계에서는 사료의 거의 100%를 유기사료로 급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유기축산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증체계 구축 등 각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상품 자체의품질차별화로 소비자에어필

가. 브랜드 활성화 전략

브랜드의 기본 조건은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균일한 품질을 위해서는 먼저 종축과 사료가 통일되어야 한다.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통조성의 의미에서 가축개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료의 통일은 자신들의 브랜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양을 위한 사료성분 등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사료에 관한 컨설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사육규모가 문제가 된다. 한우 브랜드의 경우에 대해 사육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00두 이상 규모가 14.7%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일 2두 정도 공급한다고 할 때, 대략 전국 인구의 0.048%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 최소 사육규모를 농림부는 4,000두 정도로 보고 있다. 최소 사육규모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시 · 군 단위 중심의 브랜드로는 브랜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광역브랜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 · 판매관련 브랜드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부위를 생산하므로 이에 적합한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품질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구매에 적합한 가격 전략 및 촉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회원조합간 출혈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브랜드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지역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 · 경영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사료 대책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야 한다. 조사료 자급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며, 조사료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료포 개발 및 답리작 이용 증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야 한다. 답리작 이용적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답리작 재배의 유인책을 도입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경지 중 생산성이 높고 경제성이 있는 사료작물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조사료 기계구입자금에 대한 정부의 보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여건에 맞는 품종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량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우량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농 · 축협, 지역 농과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컨설팅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조사료 생산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 · 축협을 통한 지역내 또는 지역간 벼 재배농가와 축산농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볏짚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수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벼 재배농가와 생볏짚 랩 사일리지의 기계화작업을 연계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여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앞에서 조사료의 수급에 대해 검토하였듯이, 현재 가축에 급여하는 조사료는 볏짚 위주여서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조사료의 양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양에 비해 훨씬 많아, 조사료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조사료 수입의 확대에 대비하여 조사료 수입체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축우용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용 근채류(풀사료)에 대한 쿼터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전염병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선에 의한 외부적 수요충격 최소화

2000년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수차례의 가축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수요의 외부적 충격이 축산물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앞으로는 최소한 가축의 질병 및 전염병으로 인한 수요의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소비자에게 대한 축산물의 이미지를 잘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가축 전염병 재발 등이 되풀이 된다면, 공든탑이하루아침에무너질것이기때문이다.

가축방역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는 가축방역 조직의 혁신적 강화,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의 대폭 확충, 효율적 이용 및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가축방역조직을 일원화하여 중앙 방역 조직을 확대 · 개편하고, 시 · 군별 방역조직을 통합 · 운영하며, 방역 예산을 확충하고, 가축방역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단계적으로 민간방역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민간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의해 방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검역조직 및 업무를 재편 또는 개선하고 해외 질병의 유입 방지 시스템과 검역관련 연구조직 및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가축질병 예찰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첫째, 질병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조기신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전염병 근절을 위한 단계별 전염병 관리 표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사료생산에서 축산물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가축 질병 정보가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력의 대폭 확충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기능들을 확대 재편하고 수의직과 축산직 등 관련 인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방역조직의 개편, 인력과 예산의 확충, 민간방역조직 및 운영의 활성화, 전염병 발생시 긴급조치 대책 등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주요 전염병의 방역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악성 전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축방역 및 검역조직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시급히 강화하여야 한다.

5. 자조금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축산물 소비의 확대와 신시장 개척

자조금이란 생산자가 자신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금씩 돈을 모아 소비촉진과 관련 연구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다. 자조금의 용도는 애초의 목적대로 소비홍보와 연구활동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요즈음 시중에 부는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을 타고 검은콩 우유라는 신제품의 인기가 대단하다. 이처럼 신제품 개발에 의한 축산물 소비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자조금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으로는 축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물량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업자들도 축산물 소비홍보와 관련 연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입업자를 자조금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조성된 자조금이 보다 투

명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비용절감 대책

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사료원료 수입제도의 개선

국내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매우 높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사료비 절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규모의 확대 또는 일회 구입단위의 확대로 단위당 사료구입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돼지의 사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비용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한편,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들 업체의 사료생산비용 절감을 통해서도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료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어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곧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된 사료에 각종 관세와 세금 등을 붙이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 카나다, 호주 등 축산물 수출국은 관세나 세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제도 개선과 아울러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조정해 줌으로써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원료별로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원료 수급 및 도입가격에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료비 절감과 사료비 이외의 비용절감노력

우리의 축산업이 고비용의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단위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높아지는비용 이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진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비용을절감시키는방법도생각해볼 수있다.

가축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일관생산을 하거나 종돈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농가조직화를 통한 공동구입에 의해 사료의 일회 구입단위를 확대하여 단위당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돼지의 사료효율을 높이고 비용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농장에 어떤 결점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종축을 갱신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성에 의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자신의 농장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근절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 등등, 찾아보면 비용절감의 여지는 의외로 아주 많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려면, 높은 등급을 받거나 좋은 품질이라는 이미지의 브랜들 가지고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위생적이고 잔류물질이 없는 사양관리 및 유통이 기본이 된다. 위생수준의 향상은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축산농가, 관련 유통업자 등 관계자 모두가 위생수준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 축산농가의 혼자 힘만으로 단시간 내에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농가를 조직화하고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서로의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축협조합 · 영농조합법인 · 축종별 모임 등과 축산농가의 계열화를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축종별 사업추진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보급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농가를 연계하여 시장지향적 축산사업 추진체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유통부문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그리고 생산부문에는 우수농가관리제도(GAP)의 개념이 철저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부가가치를 공동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사료의 일회 대량구입에 의한 사료 구입가격의 절감이라는 효과도 수반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 시장의 개척, 유통 합리화, 정보의 유통 원활화, 농가 차원이 아닌 산업차원에서의 접근 등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보다 많다.

7. 축산관측기능의 강화를 통한 민간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수급을 적기에 적절히 조절함으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사육두수 과잉 전망시, 도태와 조기출하를 장려하거나 출하를 조정하는 등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개방 체제에서 정부주도의 수급조절이 한계가 있음으로 항구적이고 시스템화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구가 필요하다.

민간이 주축이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현행 사육두수 위주의 축산관측을 대폭 보완하여 계절별, 부위별 수요와 공급량, 재고, 수출입량, 재고, 가격 등을 사전에 전망하여 적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 관측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을 강화하며,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전문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 생산자단체 · 농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축종별 경영체별 표준 기술 · 경영모델 설정 및 지원을 차별화하고, 축종별 생산자조직을 유통개선 및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의 핵심주체로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종별 연합회 등 품목단위 수급조절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부는 가격 및 수급전망 모니터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자조금 조성을 통해 균형 소비확대를 위한 TV광고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양계의 경우, 현재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종계회사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종계의 조절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던 양계수급안정방식을, 정부는 시장의 경쟁적인 여건 조성과 필요한 경우 지원에만 기능을 하고, 가능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효과적인 민간 수급조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유통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